

# Digital asset weekly

디지털자산/원자재 심수빈 sb.shim@kiwoom.com  
RA 김현정 hyun.k@kiwoom.com



## Check Point. 비상장주식 거래소, 토큰증권 유통 시장 관심 확대

- ▶ 토큰증권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장외거래증개업 요건, 유통 시장 규모 등 예측이 어려운 상황. 이에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조각투자사와 협력을 강화하며 발행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 발행의 경우 유통에 의해 상대적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낮기 때문
- ▶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비상장주식 거래소가 토큰증권 장외거래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이는 토큰증권 장외거래시장이 현재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만일, 비상장주식 거래와 유사한 수준의 장외거래증개업 규제가 마련된다면 기존 인프라와 사업 체계를 갖춘 비상장주식 거래소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 관련하여 비상장주식 거래소 '서울거래'가 토큰증권 규제 정비 시 토큰증권 장외거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다만, 관련 법안과 장외 유통시장의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법개정 여부와 세부 요건 발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한눈에 보는 토큰 증권 주간 이슈 (3/22~3/28)

### • 평거, 광동제약과 토큰증권 분야 공동 사업 MOU (3/22, 뉴시스)

- 평거·광동제약, 투자계약증권 발행 및 토큰증권 분야 공동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양사는 광동제약 자산을 기반으로 토큰증권 발행·유통 상품화 협력 예정

[https://han.  
gl/LUnOK](https://han.gl/LUnOK)

### •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초대 대표에 김상민 전 국회의원 선임 (3/25, 조선비즈)

- 초대 대표를 선임한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오는 4월 중 아이티센, 하나은행 등 11개 컨소시엄 주주사 출자를 통해 법인 설립 준비. 법인은 6개월 가량 운영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실제 거래소 운영 예정
- 거래소 상장 자산으로는 토크나 원자재, 토크나 탄소배출권 등이 언급

[https://han.  
gl/Tnx1](https://han.gl/Tnx1)

### • 증권사, STO 법제화 난항에도… 플랫폼 구축 속도 (3/25, 메트로)

- 토큰증권 제도화가 늦어지고 있으나 증권사들의 관심 여전. 특히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는 모습
-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나 조각투자사업자등과 협업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증권사는 개발 완료 후 테스트 단계 진행

[https://han.  
gl/N5R8o](https://han.gl/N5R8o)

### • 클로잇-시그마체인, 블록체인 사업 협력 MOU (3/26, 스마트투데이)

- 클로잇(클라우드 전문 기업)·시그마체인(블록체인 전문 기업),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대해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양사는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 외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시장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힘

[https://han.  
gl/4Vbv8](https://han.gl/4Vbv8)

### • 서울거래, 무주공산 '장외거래' 선점 주력 (3/27, 더밸)

- 토큰증권 장외거래시장 진출 잠재력을 가진 곳 중 하나는 비상장주식 플랫폼. 비상장주식 플랫폼은 분산원장 기술 이해도가 높고 거래 시스템 등에 대한 운영 노하우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
- 현재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는 '서울거래'가 토큰증권 장외거래시장 진출 준비

[https://han.  
gl/JIA8r](https://han.gl/JIA8r)

### • 디지털자산 인프라 협의회 출범, "디지털자산 제도화로 산업계 혁신 성장" (3/27, 전자신문)

-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촉구하는 '디지털자산 인프라 협의회'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의해 출범.
- 협의회는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대한 입법 및 정책 제안 공식 채널 역할을 수행할 예정

[https://han.  
gl/mON4F](https://han.gl/mON4F)

**비트코인 주간 리뷰(3/21~3/28)**

▶ **비트코인, 3월 28일 기준 \$70,712.9로 3월 21일 대비 +8.0%(Bloomberg 기준)**

주중 비트코인 가격은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며 상승. 비트코인 가격이 역사적 고점을 기록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4월 반감기에 대한 낙관론 하에서 조정 시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반등. 이러한 흐름 속 이번주 비트코인은 7만달러 내외에서 등락

## 한눈에 보는 가상자산 주간 이슈 (3/22~3/28)

### • SEC 이더리움 재단 조사, ETH 현물 ETF 승인 지연 목적? (3/22, 서울경제)

- 지난 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증권성 검증을 위하여 재단 조사 진행. 이에 대해 일각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지연 또는 반려 목적이라는 주장 제기

[https://han.  
gl/5hDkg](https://han.gl/5hDkg)

### • EU 의회, 암호화폐 익명거래 금지법 통과… “3년 내 EU 전지역 적용” (3/25, 블록스트리트)

- 유럽연합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호화폐 익명 거래 금지 정책 도입.

[https://han.  
gl/FPw50](https://han.gl/FPw50)

### • 런던 증권거래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ETN 5월 28일 상장 (3/26, 블록미디어)

- 런던증권거래소(LSE)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상품, 거래소 상장 노트(ETN) 상장 신청 접수를 4월 8일부터 진행 예정. ETN 승인 시 영국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가들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투자 가능.

[https://han.  
gl/xC3tl](https://han.gl/xC3tl)

### • CFTC “이더리움은 상품” 재언급 (3/27, 디센터)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 소송에서 이더리움 등 다수 가상자산이 상품에 해당한다고 강조. 관련하여 SEC를 견제한 발언이라는 분석 등장

[https://han.  
gl/qU7QO](https://han.gl/qU7QO)

### • 오는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금융위,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 공개 (3/27, 테크엠)

-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조사·조치 단계별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규율. 특히 혐의자 도주·증거인멸이 예상되는 경우 금융위원장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가 가능한 패스트트랙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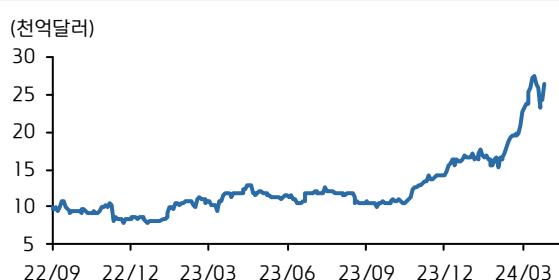
[https://han.  
gl/LPYss](https://han.gl/LPYss)

### • 미국 법원 “코인베이스의 美증권법 위반 소송 진행” (3/28, 연합뉴스)

- 지난해 6월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중개 업무 수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이에 코인베이스는 소송 각하를 요청하였으나 법원이 각하 요청 기각. 따라서 소송이 계속 진행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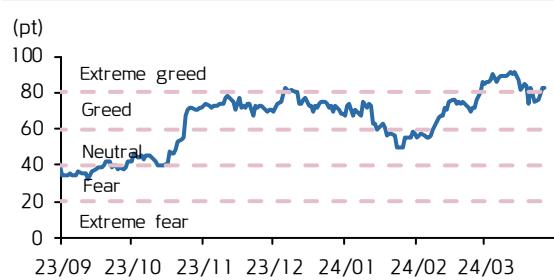
[https://han.  
gl/AoIYw](https://han.gl/AoIYw)

##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



자료: coinmarketcap,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가상자산 공포·탐욕 지수



자료: coinmarketcap,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변동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미넌스



자료: coinmarketcap,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